

樂志歌



[해제]

<낙지가(藥志歌)>는 조선 시대 이서(李緒 : 1484~)가 지은 전남권 가사의 효시 작품이다. 이 가사는 작자의 사우(祠宇)인 몽한각(夢漢閣 : 지금의 담양군 대덕면 면소재지에 있음)에서 출간한 몽한영고(夢漢零稿)에 수록되어 전한다. 이 가사는 "崑崙一脉씩씩러저小中華로드러올제唐"으로 시작하는 가사이다.

[원문]

藥志歌

藥志歌

崑崙一脉씩씩러저小中華로드러올제
唐堯曾祝華山으로夫子昔登泰山되야
七百洞庭 내려오며 十二巫山 얼핏짓고
秦始皇帝 萬里城을 天開地裂 핵버리며
乘彼白雲 구름속의 海東朝鮮 도라보니
天府金城 터이로다 萬世基業 지어보식
漢陽江水 멀리돌너 終南山이 되어서라
左爲靑龍 右白虎로 直上五千 三角山이
萬戶長安 터를지여 以嫉當世 君子로다
黃河之水 天上來라 千年一淸 물이말가
請祝聖人 이아니며 九五龍이 飛龍이라
粒我蒸民 모든百姓 水火中の 건지시고
向明南面 卽位하시니 仙李乾坤 王春이라
西周文物 八百이요 東魯衣冠 七十이라
唐虞太平 五百年의 湯武休治 一千載라
聖子神孫 繼繼承承 於千萬年 無窮이라
天佑神助 我東方의 八道處處 名山이라
京畿道는 王城이니 不可勝數 奇峯이오
黃海道라 九月山은 年年歲歲 九月이오
江原道라 金剛山은 一萬二千 諸峯이오
忠淸道라 俗離山은 雲外特立 高峯이오
平安道라 妙香山은 海上雄鎮 奇觀이오
慶尙道라 太白山은 轟天壓地 不老하고
咸鏡道라 石荒山은 罷霧粧霞 春色이오
全羅道라 智異山은 萬八千年 靑靑하고
湖南千里 名區되여 五十三州 各고을의
星列棊布 버런느되 秋月山이 潭州로다
千萬年之 主龍이오 十五面之 標準이라

往古來今 太守마다 郡中無事 高枕하여
 化及萬家 仁聞이오 恩洽百姓 善政이라
 推賢養老美俗이오 愛民下士 厚禮로다
 北關下의 良臣이오 南州中의 賢侯로다
 瓜期六載 城主例를 更留五年 民願이라
 邑之以南 三十里의 一抹靑山 矗矗하여
 八鶴洞裏 지닌와서 一脉鷹峯 되어서라
 前對奇峯 得仁이오 左有名山 萬德이라
 後繞錦城 三峯이오 右抱獐山 九區로다
 鷹峰아리 터를닥고 이닌人生 슝서라
 主聖臣良 이世上의 ㅎ옴업시 安土하여
 得仁山上 仁을어더 親親爲大 養親하니
 孝誠이야 至極홀가 北堂安寧 바리셔라
 萬德山上 德홀바다 明明爲道 敎人홀제
 堂三間 지어노코 迎月掃石 閒暇하든
 庭畔綠竹 漪漪홀제 淇澳詩를 吟誦하니
 우리大王 聖德이라 如切如磋 有斐로다
 谷中葛生 萋萋홀제 葛覃詩를 記誦하니
 우리大妃 仁惠로 爲絺爲綌 無斃이라
 土階三等 노피싸고 數株杏花 심어시니
 太和元氣 孔夫子의 絃歌一曲 依依하며
 巡簷半夜 徘徊하고 點梅花 슬퍼보니
 安樂窩中 邵康節의 點易一卷 歷歷하든
 人皆堯舜 本然之心 操存不捨 하여보시
 牛山伐木 모든스름 伐木마소 伐木마소
 嘉木森森 夜來하니 虛明氣像 淡然하든
 仁義禮智 天賦之性 率而爲綱 하여셔라
 前溪擊水 모든아히 擊水마라 擊水마라
 綠水洋洋 下逝하니 順流形勢 美哉로다
 小學之方 비와니여 灑掃應對 일원後의
 大學之道 달나드려 窮理正心 하여셔라
 舜何人也 余何人也 顔子말슴 粹然하며
 文王我師 豈欺我哉 周公之道 大矣로다
 丘隅綿蠻 喚友鶯이 於止知其 所止하니
 天地中間 이닌생이 止善홀줄 모를소야
 丹山夜月 墮卵鳳이 以德知其 覽德하니
 萬物之靈 이닌몸이 賢德홀줄 모를소냐
 臥龍先生 諸葛亮은 南陽싸의 밭슬갈며

鷺處士陶 淵明은 北窓아리 술을걸너
各得其志 뜻을즐겨 不求聞達 조흔시고
陋巷簞瓢 자바다가 安貧이나 ㅎ여보식
平原食客 三千中의 毛遂自薦 우습도드
風簑雨笠 썰쳐입고 負郭田을 가라니니
遊說六國 蘇季子의 腰佩黃金 불버ㅎ라
竹裏獨坐 彈琴ㅎ니 王摩詰이 故人이오
川邊盡日 訪花ㅎ니 程明道가 賢師로다
書不盡意 圖不盡情 이닌事業 ㄴ알소냐
仲長統의 樂志論을 我亦私淑 ㅎ여셔라

[현대역]

藥志歌

낙지가

곤륜산¹ 한 줄기 뚝 떨어져 조선² 땅으로 들어올제
 요임금³ 축제하던 화산⁴으로 뺨어 공부자 오르⁵시던 태산⁶이 되고
 칠백 리 동정⁷호 흘러내려 무산 열 두 봉⁸을 슬쩍 짓고
 진나라 시황제 만리 장성을 온 세상 벌려 해쳐⁹내며
 백운 타고 구름¹⁰ 속에 해동 조선 돌아보니
 천부 금성¹¹ 터구나 만세 기업¹² 세워 보세
 한강물이 멀리 돌아 종남산¹³이 되었구나
 좌 총룡 우 백호로 오천 척 위 삼각산¹⁴이
 만호 장안 터를지여 이사당세¹⁵ 기다리는 君子로다
 황하수¹⁶는 천상에서 흘러 천년 일청(千年一淸) 물이 맑아
 성인¹⁷ 축복 이 아닌가 구오룡¹⁸(九五龍)이 비룡(飛龍)이라
 입아증민(粒我蒸民)¹⁹ 모든 백성 고통²⁰에서 건지시고
 향명(尙明)남면(南面)하여 즉위하니 이²¹씨 세계 왕조²²의 시작이라
 서주(西周) 문물은 팔백년이요 노나라 제자²³ 칠십이로다
 요순²⁴ 세월 오백년에 탕왕 무왕²⁵ 천년²⁶이로세
 대대 왕손²⁷ 계승하여 천년 만년 무궁하다
 천우신조 우리 동방 팔도 곳곳 명산이라
 경기도는 왕성이니 헬 수 없는 기봉들이요
 황해도의 구월산은 세세 연년 구월이요
 강원도의 금강산은 일만 이천 봉우리요
 충청도의 속리산은 세속 밖²⁸의 고봉이요
 평안도의 묘향산은 해상 웅진(海上雄鎭) 경관²⁹이라
 경상도의 태백산은 늙어³⁰ 불로(不老)하고
 함경도의 석황산은 파무 장하(罷霧粧霞)³¹ 봄빛이라
 전라도의 지리산은 만팔천 년 푸르렀고
 호남 천리 명구되어 오십삼 주 각 고을이
 성기(星基)³²처럼 벌렸는데 추월산은 담주(潭州)³³로다
 천만 년의 주룡(主龍)이요 십오 면(十五面)의 표준이라
 가고오는 태수마다 무사³⁴하여 태평³⁵하고
 교화 ³⁶두루 미쳐 어질다는 소문이요
 백성³⁷께 베풀 은혜 일마다 선정이라
 현자 쫓고 어른 봉양 아름다운 풍속³⁸이요 백성 사랑³⁹함은 도타운 덕이로다
 궁궐에는 어진 신하요 남주(南州)에는 어진 관리라
 임기 육년⁴⁰은 관아 규정⁴¹인데 다시 오 년은 백성⁴²들 소망이네

고을 남쪽 삼십리엔 일말 청산43 우뚝 솟아
 팔학동을 지나와서 일맥 응봉(應奉)44 되었구나
 기봉45 마주보니 득인산이요 좌측 명산은 만덕산이라
 뒤에 금성46은 삼봉이요 우측 장산은 아홉 구역47이라
 응봉 아래 터를 닦고 이내 인생 살아가리
 성주(聖主)양신(良臣)48 이 세상에 근심없이 편히 살다
 인산의 인(仁)49을 얻어 크다 하여 봉양하니
 효성만은 지극해서 북당 안녕50 바라도다
 만덕산 덕을 받아 밝은 도51로 교인(敎人)할제
 초가 삼간 지어놓고 자연 속에52 한가롭다
 돌가의 푸른 대53 흔들릴제 기오시(淇悞詩)54 읊고 나니
 우리 임금 성덕이라 같고 닦아 빛나도다
 산골 취덩굴55 무성하여 갈담시(葛潭詩)56를 읊고 나니
 우리 대비 어진 은덕 취배 옷이 싫지 않다57
 토계(土階)58 삼단 높이 쌓고 행화 몇 주 심었으니
 태화 원귀(太和元氣)59 공부자의 현악 한 곡60 의의하며
 밤중 순찰61 배회하고 매화 몇 점 살펴보니
 아락와(安樂窩)62 소강절(邵康節)의 주역 한 권 분명하다
 모두 요순 본연의 마음 지키도록 하여보세63
 나무 베는64 모든 사람 벌목 마소 벌목 마소
 나무 울창하여65 야래(夜來)하니 허명(虛明)기상 산뜻하다66
 인·의·예·지 타고난 성품67 삼강오륜68 삼았구나
 앞내에 노는 모든 아이 물장난69 마라 물장난70 마라
 푸른 물 흘러가니71 잔잔한 형세72 아름답다
 소학의 도 달려 들어73 청소와 손님 접대74 이룬 뒤에
 대학의 도75 달려 들어 궁리 정심(窮理正心)76 하였어라
 舜何人也余何人순은77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안자78 말씀 순수하며
 문왕은 나의 스승79 어찌 날 속일 건고 주공(周公)의 도 크고 크도다
 언덕에서 우는 꾀꼬리80 그칠 곳엔 그칠 줄 아니81
 천지 사이 이내 인생 지선(止善)82할 줄 모를쏘냐
 단산의 달밤 알을 낳는 봉황83 은혜로써 덕을 보니
 만물의 영장 이내 몸이 덕을 볼 줄 모를쏘냐
 와룡선생 제갈량은 남양 땅에 밭을 갈며
 축연처사(逐燕處士) 도연명은 북창(北牕) 아래 술을 걸러
 뜻을 좇아84 즐겨 사니 불구문달(不求聞達)85 좋도다
 시골 살림 누리면서 안빈낙도 하여 보세86
 평원군 식객87 삼천 중에 모수의 자천(自薦)88이 우습구나89
 도롱이 샅갓90 걸쳐 입고 논 밭91을 갈아내니

육국 유세하던 소진(蘇秦)92의 허리의 황금93 부러워하라
대밭에서 탄금94하던 왕유(王維)95도 고인이오
넋가에서 탐화(探花)96던 정이(程頤97)는 현사(賢師)로다
뜻 다하지 못하고 정 다하지 못하니98 이 내 사업 누가 알라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志論)을 내 또한 사숙99 하리라

[각주]

- 1) 곤륜일맥(崑崙一脈) : 곤륜산 한 줄기 지역.
- 2) 소중화(小中華) :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지칭함.
- 3) 당요증축(唐堯曾祝) : 요(堯)임금이 일찍이 축복함.
- 4) 화산(華山) :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 태화산.
- 5) 부자석등(夫子昔登) : 공자가 일찍이 올랐음.
- 6) 태산(泰山) : 중국 산둥성에 있는 오악 중의 하나.
- 7) 칠백동정(七百洞庭) : 칠백 리에 이르는 동정호.
- 8) 십이무산(十二巫山) : 열 두 봉우리가 있는 무산
- 9) 천지개열(天地開裂) : 하늘과 땅이 열리어 펼쳐지는 듯
- 10) 승피백운(乘彼白雲) : 저 흰구름을 타고서.
- 11) 천부금성(天府金城) : 하늘이 주신, 산물이 풍부하고 견고한 성이 있는 토지.
- 12) 만세기업(萬世基業) : 영원한 삶의 터.
- 13) 종남산(終南山) : 중국의 산 이름. 여기서는 서울의 남산을 말함. 목멱산.
- 14) 삼각산(三角山) : 서울의 진산. 일명 화산(華山).
- 15) 이사당세(以族當世) : 당세를 기다리다.
- 16) 황하지수 ~ 물이 밝아 : 황하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천 년이 지나도록 한결 같이 물이 밝다.
- 17) 17) 청축성인(請祝聖人) : 성인의 축원을 청한 바. 성인축복
- 18) 구오룡(九五龍) : 『주역』의 건괘 구오(九五)에 나오는 용, 즉 나는 용. 또한 구(九)는 양수, 오(五)는 역괘에서 천자의 지위를 나타냄.
- 19) 입아증민(粒我蒸民) : 백성들 모두가 곡식을 먹고 살게 함.
- 20) 수화중(水火中) :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 21) 선리건곤(仙李乾坤) : 이씨 조선의 시작.
- 22) 왕춘(王春) : 주왕(周王)의 봄이라는 뜻. 통일된 천하를 의미함.
- 23) 동로의관(洞魯衣冠) : 노나라의 제자(諸子)를 말함
- 24) 당우태평(唐虞太平) :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말함.
- 25) 탕무휴치(湯武休治) : 당왕과 무왕이 인의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치게 됨을 뜻함.
- 26) 일천재(一千載) : 일천 년의 세월을 뜻함.
- 27) 성자신손(聖子神孫) : 자자손손.
- 28) 운외특립(雲外特立) : 세상 밖.
- 29) 기관(奇觀) : 바다 위의 웅장하고 기이한 경관.
- 30) 축천압지(矗天壓地) :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땅을 누르는 것을 의미함. 넓고 넓다는 뜻.
- 31) 파무장하(罷霧粧霞) : 안개가 그치고 노을이 진다.
- 32) 성렬기포(星列碁布) : 별을 늘어놓은 듯, 바둑돌을 펼쳐놓은 듯.
- 33) 담주(潭州) : 담양의 옛 이름.
- 34) 군중무사(郡中無事) : 무사태평함을 의미함.
- 35) 고침(高枕) : 안락하고 근심 없는 생활.
- 36) 화급만가인문(化及鳶家仁聞) : 교화가 두루 미쳐 인자하다는 소문.

- 37) 은흠백성선정(恩洽百姓善政) : 백성에게 스민 은혜는 곧 선정이 되었음.
- 38) 추현양로(准賢養老) : 어진 자를 좇으며 노인을 공경함.
- 39) 애민하사(愛民下士) :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사랑함.
- 40) 과기육재(瓜期六載) : 지방 장관의 임기 6년을 뜻함.
- 41) 성주례(城主例) : 관리의 규칙
- 42) 갱유오년민원(更留五年民願) : 백성들이 다시 5년 간의 통치를 소망함.
- 43) 일말청산(一抹靑山) : 한 봉우리의 푸른 산.
- 44) 일맥응봉(一脈鷹峰) : 한줄기 매봉.
- 45) 전대기봉(前對奇峰) : 기이한 봉우리를 마주 대하다.
- 46) 후요금성(後繞錦城) : 뒤편을 둘러싼 금성.
- 47) 우포장산구구(右抱獐山九區) : 우측에 안은 장산은 모두 아홉 구역이다.
- 48) 주성신량(主聖臣良) : 성군과 양신
- 49) 친친위대(親親爲大) : 가까운 사람을 친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중요함.
- 50) 북당안녕(北堂安寧) : 어머니의 안녕.
- 51) 명명위도(明明爲道) : 뚜렷하고 밝은 도.
- 52) 영월소석(迎月掃石) : 달맞이하면서 돌을 쓸다. 자연 속에 살다는 의미임.
- 53) 정반녹죽의의(庭畔綠竹猗猗) : 뜰 가의 푸른 대나무가 흔들리다.
- 54) 기오시(淇澳詩) : 『시경』의 <주남>편에 있는 시. 위(衛)나의 무공을 칭송한 노래.
- 55) 곡중갈생처처(谷中葛生妻妻) : 골짜기의 칩덩굴이 무성함.
- 56) 갈담시(葛覃詩) : 『시경』의 <주남>편에 있는 시. 시집간 색시가 근친(覲親)하려는 때의 노래.
- 57) 위치위격무두(爲絺爲紵無數) : 가는 침베와 굵은 침베의 옷도 싫지 않음을 의미함.
- 58) 토계(土階) : 흙 계단.
- 59) 태화원기(太和元氣) : 조화롭고 밝은 기운.
- 60) 현가일곡(絃歌一曲) : 거문고 한 곡조.
- 61) 순침반야(巡簷半夜) : 한 밤중에 순찰을 돌다.
- 62) 안락와(安樂窩) : 송나라 소강절이 살던 곳.
- 63) 인개보순 ~하여보세 : 요순의 본연지심을 모두 지켜보자.
- 64) 우산벌목(牛山伐木) : 우산에서 나무를 베다.
- 65) 목삼삼(嘉木森森) : 나무숲이 울창함.
- 66) 허명기상 담연하다 : 울창한 나무숲에 밤이 오면 은근히 밝은 기운이 산뜻하다.
- 67) 천부지성(天賦之性) : 하늘이 내린 성품. 타고난 성품.
- 68) 솔위위강(率而爲綱) : 거느려 버리고 삼다. 즉, 삼강오륜으로 삼았다.
- 69) 전개격수(前溪擊水) : 앞개울에서 물장구치며 노는 아이.
- 70) 격수(擊水) : 물장구치며 놀다.
- 71) 녹수양양하서(緣水洋洋下逝) : 푸른 물이 넘실넘실 아래로 흘러가다.
- 72) 순류형세(順流形勢) : 순리대로 흐르는 물의 형세.
- 73) 소학지방(小學之方) : 『소학』의 가르침.
- 74) 쇄소응대(灑掃應對) : 물을 뿌리고 먼지를 쓸어 사람을 맞이함

- 75) 대학지도(大學之道) : 대학』의 가르침.
- 76) 궁리정심(窮理正心) :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잡다.
- 77) 순하인야여하인야(舜何人也余何人也) : 순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 78) 안자(顏子) : 이름은 회. 공자가 아끼던 제자 중의 한 사람.
- 79) 문왕아사기기아재(文王我師豈欺我哉) : 문왕은 나의 스승이니 어찌 나를 속일 것인가.
- 80) 구우면만환우앵(丘隅綿彎喚友鶯) : 언덕 모퉁이에서 지저귀며 벼를 찾는 꾀꼬리.
- 81) 어지지기소지(於止知其所止) : 그칠 때가 되면 그칠 줄을 안다.
- 82) 지선(止善) :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정도의 착함.
- 83) 단산야월타란봉(丹山夜月墮卵鳳) : 단산의 달밤에 알을 낳는 봉황새.
- 84) 각득기지(各得其志) : 각자가 뜻을 좇다.
- 85) 불구문달(不求聞達) : 명성이나 벼슬, 부귀 등을 구하지 않다.
- 86) 누항단표(陋巷簞瓢) :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비유한 말.
- 87) 평원식객(平原食客) : 평원군의 문객.
- 88) 모수자천(毛遂自薦) : 모수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함.
- 89) 우습도다 : 낭중지추(囊中之錐)의 고사 참조.
- 90) 풍사우립(鳳蓑雨笠) : 도롱이와 삿갓.
- 91) 부각전(負郭田) : 성과 가까이 있는 땅.
- 92) 소계자(蘇季子) : 전국시대 종횡가(縱橫家)의 소진(蘇秦)을 말함. 육국을 돌아다니며 유세했다고 함.
- 93) 요패황금(腰佩黃金) : 허리에 찬 황금. 곧 부귀영화.
- 94) 죽리독좌탄금(竹裏獨坐彈琴) : 대 발에 홀로 앉아 거문고를 타다.
- 95) 왕마힐(注應詰) :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
- 96) 천변진일방화(川邊盡日訪花) : 하루 종일 냇가에서 꽃놀이하다.
- 97) 정명도(程明道) : 송나라 문인. 정호程顥.
- 98) 서불진의도불진정(書不盡意圖不盡情) : 책으로도 뜻을 다하지 못하고, 그림으로도 정을 모두 펼치지 못하다.
- 99) 사숙(私淑) :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배움을 이룸.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